

소아 연쇄상구균 감염 후 급성 사구체 신염에서 임상양상의 변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홍은희 · 추미애 · 김준영 · 조민현 · 고철우

Clinical Manifestations of Acute Poststreptococcal Glomerulonephritis in Children

Eun Hui Hong, Mi Ae Chu, Jun Young Kim, Min Hyun Cho, Cheol Woo Ko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 적 : 연쇄상구균 감염 후 급성 사구체 신염 (APSGN)이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다시 증가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APSGN으로 진단된 환아들의 임상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 법 : 199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5년간 경북대병원 소아과에서 APSGN을 진단받은 63례를 대상으로 하여 진료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임상양상을 확인하였고, 2000년 이전 발병군 (33례)과 이후 발병군 (30례)으로 구분하여 임상양상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외에도 나이, 성별, 단백뇨 정도, 육안적 혈뇨 유무,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이용하여 두 군으로 구분, 서로 비교하였다.

결 과 : 전체 대상 환아의 평균나이는 7세 11개월, 남녀비는 41:22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전체의 87%에서 선행감염으로 인후염이 있었으며 평균 12일 후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이행되었다. 육안적인 혈뇨는 40례에서, 고혈압은 41례에서 있었다. 신염 발생 후 고혈압은 평균 7.8일, 육안적 혈뇨는 평균 11.3일, 현미경적 혈뇨는 평균 3.5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2000년 이전 발병군과 이후 발병군을 비교한 결과, 2000년 이후 발생군의 ASO치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른 임상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발생연도, 연령, 성별, 단백뇨 정도, 육안적 혈뇨 유무,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은 신염의 임상경과, 즉 발병 후 고혈압과 혈뇨의 지속기간, 혈청 보체의 회복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 2000년 이후 발병된 APSGN은 ASO치의 차이를 제외하면 2000년 이전 발병군의 임상양상과 유사하였다. APSGN의 빈도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좀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